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449>

JCCT 2021-11-56

인공자연의 탄생과 공존의 인문학 -90년대 사이버문학론을 중심으로

Birth of artificial nature and the humanities of coexistence

이용욱*

Lee yongwook*

요약 1990년대 사이버문학론의 전개과정은 문학장의 형성과 충돌, 집단지성을 통한 상징권력 추구와 욕망의 이중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모든 욕망은 권력지향적일 수밖에 없는데, 사이버문학론은 네트워크-공간의 비평주체들이 공존의 인문학을 표방하면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96년 "사이버문학의 도전" 출간과 계간 "버전업"의 창간으로 본격화된 사이버문학론은 인공자연의 탄생을 예술의 변화와 연결지으려는 학문적 시도였지만 문학장을 형성하게 된 배경에는 현실공간의 문학장이 가상공간을 영토화하려는 시도를 막고, 자체적으로 문학장을 형성하려는 상징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사이버문학론의 실패는 현실공간과 가상공간 사이에서 비평권력의 모순된 욕망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버전업"은 본격문학과 사이버문학에 대한 사회적 구별짓기, 곧 계급적 차별화를 해소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스스로 본격문학을 답아감으로써 오히려 계급적 차별화를 공고히 했다. 90년대 사이버문학론은 상징권력에서 드러난 욕망의 모순과 구별 짓기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인공자연의 탄생에 대한 최초의 문학적 대응이었다. 문학 담론은 항상 당대의 사회적 조건(기술적 진보를 포함하는)과 예술 텍스트의 관계를 탐구해 왔다. 인공자연의 문학장 안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비평담론을 생산하는 것은 기술편집시대 문학의 중요한 과제이며, 인문학과 기술이 공존해야 하는 당위이다.

주요어 : 인공자연, 공존의 인문학, 사이버문학론

Abstract The development process of cyber literature theory in the 1990s clearly shows the duality of the pursuit of symbolic power and desire through the formation and conflict of literary fields, collective intelligence. All desires are bound to be power-oriented, and cyber literature is meaningful in that network-space critics developed while advocating the humanities of coexistence. The failure of cyber literature theory is due to the conflicting desire of critical power between real and virtual spaces. Cyber literature theory in the 1990s was the first literary response to the birth of artificial nature, although the contradiction of desires revealed in symbolic power and the limitations of barking are clear. Literature discourse has always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onditions of the time (including technological progress) and art texts. Producing a new critical discourse encompassing the whole within the literary field of artificial nature is an important task in literature in the era of technology compilation, and humanities and technology must coexist. Through this paper, we examined the impact of the birth of artificial nature on humanities. This study is an important achievement of humanities engineering that understands, interprets, and leads technology.

Key words : Artificial Nature, Humanities of Coexistence, Cyber Literature Theory

*정회원,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1년 10월 6일, 수정완료일: 2021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30일

Received: October 6, 2021 / Revised: October 21, 2021
Accepted: October 30, 2021

*Corresponding Author: icerain@jj.ac.kr

Dept. of Korea Language&Literature, Jeonju Univ, Korea

I. 서론

1917년 이광수의 “무정”을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으로 본다면, 한국현대문학사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조연현이 “文學春秋”(1965년 11월호)에 실린 “한국신문학사 방법론 서설”에서 처음 10년 단위로 문학사를 구분하는 방식을 시작한 이후 ‘십년 주기론’은 한국현대문학사 구분의 기준이 되었다. 그것은 문학이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세계에 대한 미적 태도가 작가의 창작방법론과 세계관에 삼투되는 과정에 필요조건인 역사적 대사건들이 십년 단위로 발생해 온 한국 현대사와도 궤를 같이한다. 특히 1990년대는 동서독 통일(1990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1991년) 같은 세계사적 대사건과 최초의 문민정부 탄생(1993년)이 맞물리면서 하나의 사조나 경향으로 묶어내기에는 너무도 다양한 문학 현상과 이데올로기들이 쏟아져 나온, 한국현대문학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였다. 한쪽에서는 외설작품을 창작했다는 이유로 작가가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최영미, 신경숙, 공지영, 이인화 같은 스타 작가들이 등장하였다. 후일담 문학, 포스트모더니즘 문학, 역사소설, 대중소설이 서점에 나란히 진열되고, 백만 부 이상은 팔려야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만큼 독서 시장은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본 연구자는 선행 연구에서 1990년대를 근대라는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가장 밝은 回光返照(회광반조)의 시기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1980년대 사회주의리얼리즘문학을 정점으로 ‘총체성’과 ‘진리’, ‘주체’로 상징되는 거대담론은 쇠락하기 시작했고, 소설은 역사와 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무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한결 가볍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독자들을 매혹 시켰다. 90년대 한국문학을 밝혔던 3-40대의 젊은 작가들은 근대문학의 세례를 받은 마지막 세대이자, 컴퓨터와 아래아한글을 글쓰기 도구로 사용하고 가상공간(하이텔과 천리안 같은 PC통신공간)에 작품을 연재한 최초의 세대였다. 1980년대가 근대문학의 마지막 문학장이었다면, 90년대는 근대에서 탈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고, 문학장은 현실공간을 넘어 가상공간으로 확장되었다. 이 확장은 단순한 물질-비물질의 공간 차원을 넘어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흐름을 예비하고 추동시킨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이었다. 특히 가상공간에서 자생적으로 발현된 사이버문학 담론은 문학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

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을 통해 90년대 한국 문학장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학은 그 자체가 문학적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간주되는 텍스트들이 문학이다. 이것은 문학이 단순히 언어적, 미적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행위임을 뜻한다. ‘문학성 Literarizität’의 규정은, 다시 말해 어떤 것이 문학적이고 어떤 것이 문학적이 아닌가의 문제는, 초월적이며 보편적인 가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집단이 특정의 문학적 가치를 상정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제도화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집단적, 제도적, 사회적 생산물로 문학개념을 정초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여러 사회집단 혹은 제도들이 문학적 기득권을 선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하나의 장(場), 하나의 사회적 공간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러 행위자들과 제도들이 벌이는 경쟁과 대립 그리고 투쟁의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 피에르 부르디외는 ‘문학장 literarisches Feld’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이제 사이버문학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5년이라는 시간과 텍스트의 부재라는 한계도 있지만, 무엇보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기술편집시대의 도래에 ‘사이버’도 ‘문학’도 진부해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과 기술의 상호작용에 대한 사이버문학의 ‘이해’와 ‘해석’은 2000년 이후 디지털스토리텔링, 디지털서사학, 인문공학, 기술편집예술 등의 후속 연구에 영감과 영향을 주었다. 사이버문학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행하는 90년대 한국문학의 한 풍경이자, 문학이 기술을 포용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였다. 문학이 낡은 관습으로 치부되고 문학장은 현저히 위축된 지금, 사이버문학을 재론하는 것은 이론의 기원을 찾고자 함도 아니고, 문학(특히 소설)이 가장 문학다웠던 그 시대를 향수함도 아니다. 문학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그것을 견어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역설하고 다시 한번 인공자연에서 진취적인 연구자들의 권력적 욕망이 충돌하는 도전과 응전의 문학장(文學場, champ littéraire)이 창발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예술과 기술의 공존은 인문학이 존재해야 하는 당위이다.

II. 연구 배경

1990년대 사이버문학론의 전개과정은 문학장의 형성 과 충돌, 집단지성을 통한 상징권력 추구와 욕망의 이

중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모든 욕망은 권력지향적일 수밖에 없는데, 사이버문학론은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 가상공간의 욕망이 처음으로 현실공간의 문학장에 등장한 것은 1994년 이우혁의 “퇴마록”이 출간되면서부터이다.

90년대 변화한 문학 환경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키워드는 ‘컴퓨터’와 ‘가상공간’이다. 사이버문학론이 출발한 “PC통신공간”은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의 명칭이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cyberspace라는 용어가 번역된 것인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이버문학”이라는 용어 역시 “cyberspace의 문학”이라는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우혁의 “퇴마록”은 가상공간의 문학이 처음으로 현실공간 문학장에서 상업적인 대성공을 거두며 상징자본을 획득한 최초의 사례이다. 상징자본은 다른 자본들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등이 세간으로부터 ‘인정’되었을 때 발생한다. “퇴마록”의 성공은 가상공간에도 경제, 문화, 사회적(문학)자본이 존재하고 있음을 현실공간이 인정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퇴마록”이 상징자본을 획득한 최초의 사이버문학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우혁도 사이버문학론자들도 그것을 서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우혁은 한 대답에서 “사이버 문학이라고 하면 출판이 안되고 기존의 출판과 관계가 없어야 ‘사이버 문학’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출판을 해도 똑 같고, 상관없는 작품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사이버문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다시말해 자신의 작품은 정식으로 출판됐으니 사이버문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용욱은 “사이버문학은 ‘통신 내부’와 ‘통신 외부’라는 공간적 경계와는 무관하게 작가가 실제 현실뿐만 아니라 의사 현실까지도 포함하는 새로운 시대의 리얼리티를 담아내려는 확고한 작가 의식 하에서, 소통적 상상력을 통한 주제적 소재적 세계를 구축한 문학을 일컫는다. 창작면에서는 전자글쓰기를 기반으로 하여 일관되고 도식적인 세계관과 창작방법론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실험정신과 금기에 대한 도전이 옹호되고 또 이루어지는 문학이 사이버문학이며, 소통면에서는 독자와의 자유로운 상호 교류를 통해 작가와 독자 사이의 영역이 합쳐지게 되고 이것이 다시 ‘이어쓰기’와 ‘고쳐쓰기’의 버전업 창작으로 이어진다. 이제 문학은 ‘보는 문학’에서 ‘하는 문학’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사이버문학의

소통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와 독자의 쌍방향 소통에 의한 ‘함께 하는 문학’이다”. 그리고 그가 사이버문학의 예로 분석한 작품은 송경아와 김영하의 소설이었다. “퇴마록”은 단지 가상공간에서 처음 발표되었을 뿐 환타지소설이나 공포소설 같은 장르문학의 관습을 고스란히 답습한 대중소설이라는 것이다. 이우혁은 자신이 ‘사이버’작가가 아니라 작가라 인정받기를 욕망하고, 이용욱은 사이버문학이 현실과 가상이라는 공간적 차이나 경계와 무관하게 문학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욕망했다. 가상공간의 문학장은 그 시작부터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반면 현실공간은 가상공간의 문학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퇴마록”의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아니면 그 상업적 성공 때문에 더 확신했는지 모르나) 사이버문학을 아마추어 문학으로 폄하한 기성문단의 시각에는 검열과 통제와 위계가 작동하지 않는 가상공간에 대한 이질감이 자리잡고 있었다.

PC통신문학의 수준과 가치를 기존의 문학이론과 평가의 잣대로 재는 것은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아직 그것은 지나치게 일회적인 재미에만 매달려 있으며, 그 문학성은 아마추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

새로운 소통 공간이 우리의 글쓰기에 끼친 영향은,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크게 네 가지로 목록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이 가져다준 창작담당층의 확대이며, 두 번째 실시간 쌍방향성으로 인한 작가와 독자 사이의 자유로운 소통과 경계의 무너짐, 세 번째는 권위있는 검열기제의 부재로 인한 자유로운 상상력, 또는 일탈적인 상상력의 특화(特化), 마지막으로 일상(日常)으로서의 글쓰기가 가능해졌다는 점 등이다 [1].

장석주에게는 아마추어들의 자기만족적 유희 공간이 이용욱에게는 글쓰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통 공간으로 해석됐지만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다. 공간의 정체성이 글쓰기와 글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 인정이 장석주는 “그래서 더욱 문학은 고귀하다”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용

육은 “그래서 더욱 문학은 변해야 한다”를 각각 표상함으로써 차별된다.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문학장이 사이버문학에 대한 대립적인 시각을 통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차이는 결국 각각이 받을 던고 있는 문학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결된다.

III. 이론 고찰

부르디외는 미적 근대성이 모든 시대에 걸쳐 항상 동일한 특징을 유지하지 않는 것은 미적 근대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율적 공간인 ‘예술장’이 사회와의 매개를 통해서 자신의 자율적 원리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변화시키며 진화해 왔기 때문이라 보았다. 따라서 문학 작품에 대한 문학 외적 제요인의 영향 관계를 추적하려면 반드시 문학장의 구조라는 매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전통적인 사회사는 작품 속에서 그 직접적인 표현을 발견하려고 하지만, 경제 위기, 기술의 변화, 정치적 혁명과 같은 외적인 요인들은 오직 장의 구조 변화를 매개로 해서만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

1990년대는 컴퓨터의 대중화와 PC통신서비스의 보급으로 인공자연이 출현한 시기이다. 인공자연(Artificial Nature)은 도구와 환경, 주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공자연은 가상적 기술을 통해 물리적 존재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비인간-주체와 네트워크-공간, 디지털-도구라는 비물질적 토대 위에서 성립된다. 가상공간은 인공자연을 구성하는 네트워크-공간의 90년대식 명명이다. 네티즌이라는 새로운 사회계급까지 등장하면서 결국 도구와 환경, 주체가 모두 달라진 새로운 문학장이 가상공간에서 생성되었다. 사이버문학론자들이 가상공간의 문학적 가능성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 배경에는 그들이 위치한 문학장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문학장의 개념은 문학의 생산자와 기관들의 활동 공간을 의미한다. 상이한 생산 주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적 이해관계의 구조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구조를 결정짓는 것은 경제적 자본의 분배에 따른 계급 질서(대부르주아·프티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라기보다는 문학장에 고유한 상징 자본의 분배에 따른 문학적 계급 질서이다. 문학장 속에서 특정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주체들은 장이 부과하는 일정한 게임의 규칙을 따르면서 장 특유의 가치(권력·자본)를 획득하기 위해 투쟁한다.

1996년 이전까지 PC통신공간의 문학장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아직 규칙과 가치를 스스로 만들지 못했고, 현실공간 문학장의 ‘홍내내기’에 불과했다. 하이텔과 천리안의 문학 관련 게시판에는 아마추어 작가들의 글이 넘쳐났는데 특히 이우혁의 “퇴마록 국내편 1”이 책으로 정식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 “퇴마록”의 아류작들이 게시판을 뒤덮었다. 1993년 여름부터 하이텔 SUMMER 게시판에 연재했던 에피소드를 묶어 출판한 “퇴마록”의 성공은 현실공간 문학장이 가상공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문예지들이 ‘컴퓨터와 문학’을 키워드로 특집을 마련하거나 기성평론가들의 평문을 신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PC통신문학’, ‘컴퓨터문학’, ‘전자통신망문학’, ‘키보드문학’ 등 논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제안되었지만 사이버문학은 상업문학에 불과하며, 예술성은 부족하다는 우월적 관점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가상공간 아마추어 작가들이 선호한 장르가 SF, 무협, 환타지 같은 대중문학에 치중되었음을 상기해보면 이 같은 시각이 편견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대중문학에 경도되었긴 하지만 가상공간에서 창작은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한데 반해 비평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하이텔이나 천리안의 문학비평게시판에 올려진 글들은 대부분 기존 문학에 대한 독후감이나 인상 비평 수준에 머물렀고, 오히려 가상공간의 창작물에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주로 2-30 대의 인문학 전공자거나 대학원생이었던 비평주체들이 가상공간의 문학적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가상공간에서 문학적 글쓰기를 시작하고 그것이 현실공간 문학장에서 인정받는 작가들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1994년 하이텔 문학동호회 “이야기나라”에서 활동하던 송경아가 “청소년가출협회”를 계간 “상상”에, 1995년에는 하이텔 “바른통신모임”에서 활동하던 김영하가 “겨울에 대한 명상”을 계간 “리뷰”에 게재하면서 문학적 가능성을 인정받자, 이우혁의 “퇴마록”에 열광하기에는 학부나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근대문학의 유산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비평주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실공간 문학장이 이우혁의 “퇴마록”에 자극을 받아 움직였음을 상기해보면 사이버문학에 대한 접근방식과 시각이 서로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1996년 1월 1일 이용욱은 하이텔문학게시판에 “통신문학, 이제 시작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다. 비평

의 활성화를 통해 가상공간의 문학적 가능성을 구체화 하자는 선동적인 제안이었다. 이어 4월 27일 하이텔 내 사이버문학비평그룹 “버전업”이라는 소모임이 개설되고 김재인, 김흥년, 변정수, 한정수, 김영하, 전사섭 등이 동인으로 참여한다. 8월 16일 “사이버문학의 도전” (이용옥, 토마토)이 출간되고, 이어 9월 1일 사이버문학 전문계간지를 표방한 “버전업”이 창간된다. 불과 9개월 사이에 사이버문학론은 순식간에 문학장을 형성하며 현실공간 문학장과 ‘구별짓기’에 나선 것이다.

1996년 “사이버문학의 도전” 출간과 계간 “버전업”의 창간으로 본격화된 사이버문학론은 인공자연의 탄생을 예술의 변화와 연결 지으려는 학문적 시도였지만 문학장을 형성하게 된 배경에는 현실공간의 문학장이 가상공간을 영토화하려는 시도를 막고, 자체적으로 문학장을 형성하려는 상징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PC통신문학’이나 ‘컴퓨터문학’같은 기존 용어 대신에 ‘사이버문학’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이용옥은 “사이버문학의 도전” 서문에서 ‘사이버문학’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통신문학’, ‘컴퓨터문학’, ‘키보드문학’ 등 무기준, 무영역, 무책임하게 일궈져지고 있는 새로운 문학 패러다임에 대한 난삽한 용어 사용을 경계하고, 외부의 편견을 견고한 용어와 개념 정립으로 방어하며 그 당위성을 입증함으로써 사고의 전환을 통한 영역 구축을 염두에 둔 이데올로기적인 담론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이며, 동시에 ‘통신 공간’이라는 하나의 사회집단이 ‘현실 공간’이라는 또 다른 사회집단에 대해 문학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가치판단’의 천명이 될 것이다 [1].

상징권력(象徵勸力, Symbolic Power)은 다양한 차이들의 관계가 차별적인 질서로 바뀌면서 그 차이 중 하나가 정통성의 위치로 올라서면서 나타나는 권력 효과이다. 문학장 내의 여러 입장이 서로 상호 작용하며 쟁취하려는 것이며 문학장 내의 우위를 선점하려는 투쟁을 의미한다. ‘상징권력’에서 용어와 개념에 대한 선점은 매우 중요하다. 특정한 문학영역을 나름대로 지칭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미리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나와 타자를 구분 지을 수 있는 문

학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용옥이 “사이버문학의 도전”의 한 장을 할애해 기존 용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이버문학이란 용어의 정합성을 장황하게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부르디외는 문학장 안에서 상반된 이해관계를 지닌 주체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컨대 문학적 혹은 예술적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와 기관들의 전략은 순수한 가능성을 둘러싼 순수한 대결이라는 의미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전략은 장의 구조 속에서 행위자들이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동료 작가나 넓은 독자층으로부터 주어지는 인정(認定)-제도화된 것이든 아니든—이라는 특수한 자본의 분배 구조 속에서의 위치가 전략을 결정짓는 것이다. 이 분배 구조가 장으로부터 주어지는 가능성에 대한 그들의 인식 방향을 정하고, 그 가운데 어떤 가능성을 실현하고 생산할 것인지 ‘선택’하게 만든다 [3].

인공자연 안에 문학장이 생성되자 비평주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 초기 사이버문학론은 현실공간의 우호적인 비평가 그룹에서도 제기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우찬제와 권성우, 황순재 등이 있다. 이들은 90년대 중반에 이미 등단하였고, 문예지를 통해 활발한 비평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30대 중후반의 젊은 비평가그룹에 속하였다. 그 윗세대인 김병익이나 정과리, 복거일보다는 인공자연에 우호적이었지만 그들의 비평 권력은 현실공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이버문학에 대한 관심은 90년대 문학 현상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본격문학의 한 부분이나 포섭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다.(인용문의 밑줄은 임의로 표시한 것이다)

문학의 전문성과 진정성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면 ‘PC통신문학’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 공간의 작가들이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교양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참을 수 없는 표현 욕망에 버금갈만한 신구의 교양을 갖춘다면 PC통신문학, 사이버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이 결코 가능성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 지혜를 위

해서라고 문학은 창조적 긴장을 계속해야 한다. 이 점 PC통신문학도 마찬가지이다. 아니, 바로 여기에 PC통신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4].

통신을 통해 창작활동을 시작한 송경아나 김영하 같은 소설가들이 기성 문단에 자리를 잡으면서 통신 활동을 중단하거나 최소한도로 줄이고 있다는 현실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통신공간이 기성 문단에 대한 대안적 매체라기보다는 기성 문단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매체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1].

이것은 분명 사이버문학가들의 예상되는 자폐와 그로 인한 정체성의 파탄과 다르지 않다. 현실공간과의 공유접촉 영역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새로운’ 문학의 하나로 인정하는 통신문학적 글쓰기를 배타적으로 부정할 때 성립될 수 있는 이 사이버문학론은 철저히 닫힌 세계만을 추구한다. 다만 열려 있다면, 그것은 닫혀 있는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이다. 아울러 활자문학가이든 통신문학가이든 문학이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글쓰기의 패러다임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매체의 차이를 넘어 생명과 자유의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 역동적인 상호교섭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1].

반면에 가상공간의 비평가그룹인 이용욱, 김재인, 김홍년, 여국현은 대학원 박사과정이거나 대학의 강사 신분이었다. 가상공간에서 처음 비평적 글쓰기를 시작하였고, 제도권 문단에서 한발 벗겨있었지만 그래서 더욱 그 문학장 안에 편입되기를 욕망하였다. 그 전략으로 사이버문학을 본격문학과 구분짓고 그 문학적 가치와 의미를 규명해 내는데 집중했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가상공간의 비평가그룹을 대표하는 네 사람의 사이버문학론 역시 각각의 아비투스(Habitus)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비투스에서는 예술적 취향, 직업, 계급적 지위, 교육 수준 등 개인의 삶의 모든 양상이 사회적 망을 통해 연결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천적인 의미가 생성되는데 국문학 전공자인 이용욱은 사이버문학을 문학의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한다.

지금까지의 문학이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이었다면, 사이버문학은 정보화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예술 형식이다. 중세시대에서 근대시민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사들의 영웅담을 노래했던 ‘로망스’가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떠오른 부르주아들과 피지배계급인 프롤레타리아들의 삶을 재현하는 ‘소설’로 그 재현의 양식을 바꾸었듯이, 이제 다시 소설은 정보화사회를 재현하고자 하는 ‘사이버문학’으로 재현의 양식을 바꾸고 있다. ‘로망스’의 상상력이 중세봉건질서와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기사들의 영웅적인 행위를 반영하는데 집중되었다면, ‘소설’의 상상력은 자본주의 체제가 가져온 갖가지 삶의 양태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사회 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변화한 현실을 재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상상력이 문학에 요구되며 그것이 소문적 상상력이다 [1].

미학 전공자인 김재인은 가상공간의 글쓰기가 문학을 넘어서서 예술로 향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문학은 사라지고 예술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용욱의 사이버문학은 그것이 여전히 ‘문학’임을 주장한다. 그는 글쓰기 환경이 문자 언어에서 전자 언어로 바뀌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언어적인 행위라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문제라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글쓰기 환경은 컴퓨터로, 그리고 전화선을 통해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된 PC로 바뀌었을 뿐 그 이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19 세대인 김병익은 컴퓨터로 글쓰는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토로하면서 그 변화가 문학에 심대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용욱이 바라보는 변화라는 것은 어쩌면 이 4·19 세대의 글쓰기 환경 변화 수용과 같은 정도가 아닐까? 그러나 사실 변화는 더 깊은 차원에서 다가오고 있는, 이미 다가와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현금의 변화가 상당 부분 ‘문학’ 너머로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것은 ‘사이버’문학’이라기보다는 ‘사이버’문학일 것이다. 아니, 차라리 그것은 아직 이름을 얻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잠정적으로 ‘사이버예술’이라 불러야 할 어떤 것이리라.

그리고 '사이버문학'은 이 '사이버예술'의 잘못된 명명으로 평가되며 사라질 것이다 [6].

불문학 전공자인 김흥년은 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공간을 반영하고자 하면서 그 재현 매체로 아톰(활자매체)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사이버문학은 디지털 텍스트로만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체주의자들이 말하는 사이버스페이스 상의 기호는 단순히 빛과 같은 물리적 현상을 말한 것이 아니고, 현실 공간에 참조물을 갖는 언어 기호와는 달리 현실 공간에 참조물이 없는 빈 껍데기인 비트의 조합 결과인 시플라크르를 말한 것입니다. 현실 공간에 참조물이 없어서 시플라크르이고, 따라서 비트는 물적 토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적 토대가 없는 비트를 현실 공간의 물질의 최소 단위인 아톰과 연결시킨다면 근본적으로 해체주의자들의 주장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이 연결된다면 비트의 조합으로 나타난 사이버스페이스의 기호인 시플라크르가 현실 공간에 참조물을 갖게 되므로, 이용옥님은 자신의 사이버 문학 이론의 바탕인 그들의 이론을 스스로 허물게 됩니다 [1].

영문학 전공자인 여국현은 문자가 아니라 문자를 초월한 새로운 형식, 즉 하이퍼텍스트를 염두에 두면서 활자매체 시대의 문학적 실천을 전자매체 시대의 텍스트 짜기라는 포괄적인 틀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용옥은 사이버문학론이라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면서 혁신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인쇄활자 시대의 '문학'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텍스트 곳곳에서 기존의 '문학'이라는 추상 개념 속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소위 '본격문학'과 사이버문학을 구분하는 이용옥의 태도의 근저에는 어쩌면 현재의 문학구도에 대한 전복적인 사고가 놓여있는 것 같다. 사이버문학이 '본격문학'의 지위를 차지하는 그런 전복적이다. 하지만 그의 사고가 여전히 문학이라는 범주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그는 기존의 문학이라는 장을 벗어난 새로운 (글)쓰기 실천의 장을 상정하지는 못한다. 이런 점

에서 그가 주장하는 사이버문학은 또다른 형태의 문학주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할 위험을 안고 있다 [10].

위계화된 문학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과 장치들이 작용하지만 무엇보다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비투스이다. 사회문화공간에서 지배계급은 위계화된 기존의 상징질서 체계를 피지배계급에게 정당한 것으로 오인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이 질서는 특히 교육체계를 통하여 개인에게 내면화되고, 그 결과 사고, 판단, 취향의 체계인 아비투스가 된다. 이것은 사회질서와 권력을 사회적으로 객관화시켜 스스로 인정하도록 인간내부에서 작동하는 기제이다. 사이버문학론에 대한 각기 다른 네 사람의 견해는 그들이 교육을 통해 학습한 예술관에 기인하고 있다. 사이버문학 정체성에 놓고 현실공간 문학장과의 '관점 충돌'과 사이버문학론자 사이의 아비투스에 기반한 '개념 충돌'로 초기 혼란을 겪던 가상공간 문학장은 이용옥을 중심으로 사이버문학비평그룹 "버전업"이 동인회의 형태로 개설되면서 빠르게 "사이버문학"으로 논의를 집중하고 문학장으로서의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IV. 연구 결과

사이버문학비평그룹 "버전업"은 문자 중심의 도스 환경에서 시도된 네트워크 권력을 통한 집단지성의 플랫폼이었고, 사이버문학을 주창하기 위한 투쟁의 장이었다. 투쟁공간으로서의 문학장은 특수한 내기물과 게임의 규칙을 가지는데, 이 공간은 다양한 위치를 점유하는 여러 행위자들 사이의 투쟁의 공간이다. 투쟁의 목표는 장에 고유한 자본의 전유와 정당한 독점, 혹은 자본의 재정의이다. 행위자와 기관은 내기물이 되는 특수한 자본을 전유하기 위해, 장을 구성하는 규칙에 따라서, 또 때로는 그 규칙성에 대하여 상이한 힘을 가지고 투쟁한다. 서로 대립하고 투쟁한다 할지라도 장 안의 행위자들은 장의 존속에 공통의 이해를 가지며 일종의 객관적 공모관계를 맺고 있다. "버전업"은 동인 중심 커뮤니티였다. 하이텔 문학동호회였던 "글나래"와 "이야기나라", 그리고 "바른통신모임" 문화예술분과 회원들이 의기투합하여 만들었는데 공동의 목표는 사이버문학을 비평담론으로 발전시켜 가상공간의 문학장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오픈 커뮤니티 형태로 사이버문학비평그룹 “버전업”이 개설된 이후, 게시판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은 이용욱과 김흥년 사이의 “사이버문학이나? 통신문학이나?”와 이용욱과 김재인의 “사이버문학이나? 사이버예술이나?”였다. 현실공간 문학장과의 충돌보다 오히려 가상공간 문학장 내부에서의 충돌이 더 격렬했던 것인데 그 배경은 결국 상징권력에 대한 헤게모니 다툼이었다. 그리고 이 충돌은 사이버문학비평그룹 “버전업”이 모태가 돼 1996년 가을 계간 사이버문학 “버전업” 창간호를 활자로 출판하면서 ‘사이버문학’으로 급속하게 기울게 된다.

“버전업”의 인쇄 출판은 “버전업” 동인들의 권력적 지향점과 욕망의 이중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사이버문학을 주장하지만 가상공간의 문학장을 넘어 현실공간의 문학장으로 진입하고 싶었기에 “버전업”은 현실공간의 문학장과 문예지의 형식을 답습한다. 사이버문학론이 가상공간에서 머물지 않고 굳이 책으로 계간지로 현실공간으로 뛰쳐 나온 것은 사이버작가가 되고 싶지 않았던 이우혁과 본격문학을 대체하고 싶었던 이용욱의 욕망이 일치하는 그 지점에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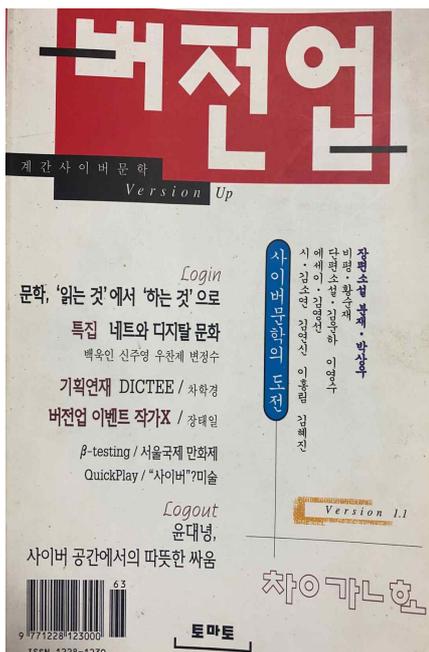


그림 1. 계간 “버전업” 창간호 겉표지
Figure 1. Quarterly “versionup” first issue cover

“버전업” 창간호의 목차와 내용을 살펴보면 “버전업”의 모순된 욕망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 1990년대 중반 한국 신세대문학의 중심이었던 박상우의 신작 소설을 분재하고, 윤대녕을 인터뷰하고, 차학경의 “DICTEE”를 발굴해 국내 최초로 번역 소개한 “버전업”은 ‘계간 사이버문학’이라는 꼬리표만 없다면 현실공간의 일반 문예지와 다를 바 없다. “사이버문학의 도전”은 가상공간에서 자신만의 글쓰기를 진정성있게 실천하고 있는 작가를 찾아내 소개하는 꼭지였지만 이용욱이 주장하는 소통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함께 하는 문학’이 아니라 본격문학을 모방하고 등단을 욕망하는 아마추어 작가들에게 지면을 준 것에 불과했다. 권성우의 명민한 지적대로 “버전업”은 또 하나의 권력기제가 되고자 욕망했던 것이다.

예컨대 이용욱은 “버전업” 창간호의 ‘에디토리얼 보드’를 통해 “사이버문학은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 될 것이며 ‘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주장하고 있는 사이버문학이 또 하나의 새로운 권력 체계임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사실 모든 비평적 담론은 권력적이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비평이 권력에 대한 도전, 권력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강조하는 것보다는 바로 자신들이 비평이 또 하나의 권력일 수 있음을 고통스럽게 인정하면서, 주체에 대한 냉철한 반성적 사유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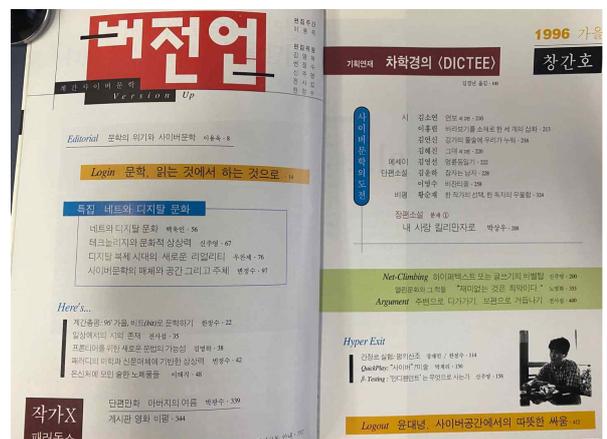


그림 2. 계간 “버전업” 창간호 목차
Figure 2. Quarterly “versionup” first issue Table of contents

그림 2의 “버전업” 창간호의 목차를 보면 기존 문예 지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시도가 있다. “버전업”이 가상공간과 사이버문학의 특징을 포착해 작가와 독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시도한 작가X 이벤트 같은 형식실험이다. 장태일, 하재봉, 두나일당, 송경아, 마광수, 김태형, 윤경수 등이 익명의 작가X가 되어 게시판에 글을 분재하면 독자들이 읽고 작가가 누구인지 추리하는 것이다. 이벤트가 끝나면 분재된 작품 전편과 독자들과 작가X의 글을 갈무리해 “버전업”에 게재했는데 참여한 작가들 모두 독자의 간섭과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토로하였다.

혈연 학연 지연, 이도저도 아니면 「안면」으로 촘촘히 엮어진 기성문단. 제도와 「패거리」의 벽에 좌절된 「비주류」는 사이버 공간을 찾는다. 사이버 문학. 「단한 문단」을 거부하고 「열린 글마당」을 지향한다. 무기는 실험성과 도전정신. ID와 글만 있으면 누구든 표현할 권리를 얻는다. 「작가X 프로그램」. 지금 PC통신 한 귀퉁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펼쳐지는 작가와 독자의 만남이다. 익명의 작가가 PC통신에 작품을 띄운다. 독자는 글쓴 이가 「저장」인지, 「애송이」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품평회를 갖는다. 편견이나 선입관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찬사 혹평이 난무하고, 슬그머니 나타난 작가는 예리한 안목에 고마워하다가 불쑥 흥분해 목청을 높인다. 사이버 공간 건너머에 꼭꼭 숨은 작가의 정체를 밝혀내는 재미가 덤이다. 사이버 문학잡지인 계간 「버전업」이 지난해 가을부터 석달에 한번꼴로 이 색다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장태일과 하재봉이 소설을, 마광수가 시를 내놓고 기꺼이 비평 도마에 올랐다. 지금은 네번째 「작가 X」가 시 4편을 매개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압권은 역시 마광수. 「...어느날 그녀는 젓가슴 언저리에 피아노 건반을 그렸어/.../그래서 나는 열심히 피아노를 쳤지...」. 「피아노」라는 제목의 「야한 시」가 오르자 독자들은 이름모를 시인의 정신세계 탐구에 열을 올렸다. 『아주 병약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고 그 콤플렉스를 이겨내는 노력을 하지 못한채 시를 통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아닐까』 『비정상적 성에

탐닉하며 유교문화 군대문화에 찌든 한국사회를 조롱할 수 있는 작가는 단 두명뿐. 마광수와 장정일... 틀림없이 마광수다』 시인은 「아주 재미있다」며 짤막한 메시지를 띄웠다. 『내 작품에 대한 반응을 보고 슬프고도 기뻛고, 쓸쓸하면서도 마조히스틱한 쾌감이 왔다』 「버전업」의 전사섭 편집위원은 『정보화 시대 글쓰기와 읽기의 전형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토론마당 제공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실제 참여자는 20명 안팎의 소수로 제한된 실정. 작품 자체가 대중성과 거리가 있는데다 프로급 논객들의 수준에 주눅든 탓도 있어 보인다. 주최측은 앞으로 사이버문학이 가야할 길이 멀다는 암시로 받아들이고 있다. PC통신 하이텔로 들어가 「go sg86」을 치면 「버전업」 게시판과 만날 수 있다 [1].

“버전업”은 동인 커뮤니티 <버전업>을 기반으로 하여 출발하였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소한 동인지로 전락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동인지 문단은 자본주의적인 생산 체제가 구체화되기 이전에 작가들이 페트론(patron)이나 살롱(salon)을 주요 활동 무대로 삼던 초기의 ‘제한된 생산의 장’에 가깝다. 결국 동인지 문단의 관리는 소비자로서의 독자나 통제 기구인 문학 내적 제도에 의해서 규제되기 보다는 ‘동호인’ 혹은 ‘동지’의 개념을 내포한 동인지 문단 내부의 동인 상호 간의 인정 투쟁에 의해 이루어진다. “버전업”이 동인지의 폐쇄성과 인정 투쟁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편집동인들의 각기 다른 아비투스나 오히려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예술은 초월적인 본질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투쟁의 맥락 위에 놓여진다. 예술은 상징투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방식의 구별짓기의 경계이자 표상으로 나타난다. 즉 작품, 양식, 장르, 예술가들 사이의 구별·경계는 ‘취향’을 매개로 불평등하게 위계화된 사회 구조 내에서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위계 관계와 정합적으로 대응한다. 사이버문학론자들은 계간 “버전업”을 통해 스스로 본격문학과 위계를 인정했다. 현실공간 문학장과 가상공간 문학장은 서로 구조적 상동성을 갖는데, ‘상동성’이란 서로 다른 장이 각 장의 자율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형적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사이버문학론의 실패는 현실공간과 가

상공간 사이에서 그들의 모순된 욕망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버전업”은 본격문학과 사이버문학에 대한 사회적 구별짓기, 곧 계급적 차별화를 해소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스스로 본격문학을 닮아감으로써 오히려 계급적 차별화를 공고히 했다. 가상공간 “버전업”과 현실공간 “버전업”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문학장을 형성하였기에 욕망의 이중성과 ‘구별짓기’의 한계는 태생적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원죄였지만, IMF를 건너며 만 3년 동안 12권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버전업” 편집동인들이 비주류 남성 386 세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주류였기에 주류에 대한 진입 욕망이 강했고, 386 특유의 정치적 감각까지 갖춰 욕망의 이중성이라는 모순을 스스로 외면하거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다.

V. 결 론

하나의 자율성을 지닌 독립된 ‘장’이 형성되는 과정은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한 투쟁과 차별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행위가 사회적 인정이라는 합법성을 획득할 때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문학장’의 기원에는 자신의 출신성분 등 사회적 위치와 성향으로부터 단절하여 새로운 위치와 행위 패턴, 신념을 창안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행위는 그 사회의 공인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얻게 되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기록된 객관적 역사가 된다. 1990년대 사이버문학론은 투쟁과 차별화를 외쳤지만 사이버문학에 대한 강한 신념도 의지도 없이 현실공간 문학장 안에서 소리없이 녹아 버렸다. 계간 “버전업”은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길트기를 시도하고 사이버문학의 가능성을 구체화시켜 현실공간 문학장의 왜곡된 구조를 타파하고 새로운 문학 실험의 플랫폼이 되겠다는 야심차게 나섰지만 그들만의(현실공간 문학장에 편입하고 싶어하는 정치적 욕망을 매개로 구성된) 상징권력에 머물고 말았고, 결국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한 채 1999년 여름호(통권 12호)를 끝으로 4년 동안의 짧은 도전을 멈추게 된다. 비록 “버전업”이라는 구심점은 사라졌지만 사이버문학을 주장했던 논자들은 그동안의 논의를 토대로 개별적인 연구 활동에 주력하게 되면서, 사이버문학론을 정리하고 그 다음의 학문적 모색을 시도하는 결과물들이 2000년 이후 학위논문과 단행본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박사학위논문으로는 ‘정보화사회 문학 패러다임 연구 - 사이버리즘의

이론적 모색’(이용욱, 한남대학교, 2000)과 ‘웹 게시판 소설의 서사연구’(김진량, 한양대학교, 2000), ‘디지털기술과 한국현대시’(이성우, 고려대학교, 2005) 등이 나왔고, 단행본으로는 김재국의 “사이버리즘과 사이버소설”(국학자료원, 2001)을 시작으로 “사이버문학론”(신범순 외, 월인, 2001), “사이버문학의 이해”(김종희 편, 집문당, 2001), “다매체문화와 사이버소설”(최병우, 푸른세상, 2002), “문학, 그 이상의 문학 - 사이버문학론의 연대기적 보고서”(이용욱, 역락, 2004), “사이버소설의 미적 구조와 세계관 연구”(김진기 외, 박이정, 2004), “사이버문화, 하이퍼텍스트문학”(김종희 편, 국학자료원, 2005), “우리시대 우리문학 사이버문학: 사이버 소설과 타자성의 환상적 지형도”(나은진, 한국학술정보, 2008) 등이 출판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이버문학과 관련된 단행본 출간이 국문과 교수 중심의 제도권 문학장에서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사이버문학론”이 국어국문학과 전공 과목으로 개설된 대학이 있었고, 국정 문학교과서 교사지침서에 이용욱의 사이버문학 관련 평문이 지문으로 실리기도 했다.

당대 사이버문학론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실패한 도전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인공자원의 탄생이라는 문학 환경의 변화가 문학 시스템 전체를 재구성할 것이라는 사이버문학론의 주장은 2000년 이후 “하이퍼텍스트문학”과 “디지털스토리텔링” 이론에 의해 실증됐고, 기술에 대한 우호적인 관점은 “디지털인문학”과 “인문공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에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 사이버문학론자들은 상징권력을 만들고자 시도했고, 제도권 문학장 안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정치적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지만 그것이 집단지성의 형태로 분출됨으로써 예술적 실천의 중요한 지점을 선취하였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개인’에 기반한 글쓰기 모델로부터 이탈하여 ‘공동체’ 기반의 네트워크 참여형 모델을 구축했다. 사이버문학비평그룹 “버전업”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익명의 작가가 등장하고 그가 누구인지 작품만으로 독자들이 찾아내는 “작가X”나 채팅방에서 진행된 “릴레이문학”, 투고된 작품을 편집위원들이 아무런 편견없이 읽고 매호 한 편 이상을 추천하여 “버전업”에 실은 “창작과 추천” 같은 활동은 기존의 문예지들은 할 수 없는 신선하고 도전적인 시도였다. “버전업”의 집단지성 플랫폼은 90년대 일반 문예지 동인 시스템의 학연자본, 출판자본, 문화자본의 폐쇄성과 엘리트주의,

인정비평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었던 동시에 지금의 인공자연에서도 유효한 플랫폼이다. 우리가 사이버문학론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그것은 문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공자연 안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문학의 미래는 암울하다. 고은과 신경숙이 추락한 자리에는 냉소와 자괴감이 넘쳐나고, 어느 순간 소설의 자리는 웹툰과 웹소설이 대신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기성 문학장을 뒤흔들만한 새로운 문학장의 출현은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정치적 욕망과 상징권력의 추구는 아날로그 시대의 낭만이 되어 버렸다. 논쟁과 투쟁이 사라진 문학장은 활기를 잃어가고 점차 쇠락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자연은 어떠한가? 9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금의 인공자연은 예술 생태계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문학도 예외가 아니며 기술편집시대와 포스트휴먼의 등장은 문학의 근본 개념부터 재구조화할 것이다. 그런데 인공자연 어디에도 문학장은 보이지 않는다. 행위자들과 제도들이 벌이는 경쟁과 대립 그리고 투쟁의 공간이 인공자연 안에 마련되어야 함은 기술편집시대에 문학이 생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기술편집시대에 문학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왜,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 우리가 인공자연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문학 비평담론은 여전히 ‘문자’와 ‘책’에 갇혀 새로운 변화에 대한 해석에 수세적이었다. 인공자연의 문학은 대중문학이고 아마추어문학이라는 시각은 현실공간의 문학이 우월하다는 순혈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이다. 90년대 사이버문학론은, 상징권력의 추구 과정에서 드러난 욕망의 모순과 구별 짓기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인공자연의 탄생에 대한 최초의 문학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미가 있다. 문학 담론은 항상 당대의 사회적 조건(기술적 진보를 포함하는)과 예술 텍스트의 관계를 탐구해 왔다. 인공자연의 문학장 안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비평담론의 생산이 기술편집시대 문학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인공자연은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References

[1] Lee Yong-wook, "The Challenge of Cyber Literature," Tomato, 1996.

- [2] Jo Yeon-hyeon, "The History of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Human History, 1961.
- [3] Pierre Bourdieu as Ha Tae-hwan. "Rules of Art - Origin and Structure of the Literary Field," Dong Mun-seon, 1999.
- [4] Seong-Woo Kwon, "PC Communication and the Role of Criticism", Quarterly Version Up, Fall 1997, 56-67.
- [5] Kim Dong-il and Yang Jeong-ae, "Artist as a Symbolic Struggler," "Culture and Society" Spring/Summer Issue, Volume 14, Korean Society for Cultural Studies, 2013, 177-233.
- [6] Jae-in Kim, "Cyber Art Challenge - Waiting for New Artists," University Culture, Spring 1997, University of Seoul.
- [7] Kim Chun-sik, "The Formation of Literature Fields in the Early Years of Korean Journalism and Comparison of Aesthetic Modernity of Western Concepts," "Journal of East-West Comparative Literature" No. 12, Korea East-West Comparative Literature Association, 2005, 171-195.
- [8] Kim Tae-hwan, "The Concept of Autonomy and the Sociology of Literature," "Literature and Society" 14(3), Literature and Intellectual Property, 2001.
- [9] Ra, Young-kyun, "Literary Field and Literature," "Research on Foreign Literature" No. 17, Institute of Foreign Literatur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4.
- [10] Yeo Guk-hyeon, "Cyber Literature' and Texting in the Cyber Era-Focused on Criticism of "The Challenge of Cyber Literary," "Culture Science" No. 11, History of Culture and Science, 1997.
- [11] Lee Sang-gil, "Culture Production and Domination: A Critical Study on Pierre Bourdieu's Field Theory". "The Press and Society", Vol. 9, No. 1, 2000, 7-47.
- [12] Lee Yong-wook, "Redomainization and Research Direction of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Language Studies" Vol.95, Korean Language Research Society, 2018, 293-313.
- [13] Imsan, "Collaboration between Artists and Engineers: 'Experiments in Art and Technology' Group," International Cultural Technology Promotion Institute Cultural Technology Convergence 5(4), 2019.
- [14] Ha-Soo, Jang, "Study on the Effect of Creativ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and Arts Organization Workers Regarding Self-efficacy and Business Performa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7 No.2, 2019.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